

일주문

청소년연합회 우리문화자각운동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회장 현성 스님은 11월 20일 제주지구 회관에서 제 13회 우리문화자각운동 기념 우리문화 골든벨을 개최했다.

천태종 제100회 동안거 입재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12월 7일 단양 구인사에서 제100회 동안거 한 달수도 결제식을 봉행한다.

동국대 불교학과 정기총회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장 홍과 스님은 12월 6일 그랜드 앤버서더 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월정사 단기출가 모집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12월 6일까지 제27차 단기출가행과 행자를 모집한다. (033)339-6616

신흥사 자비나눔 대법회 속초 신흥사 주지 우승 스님은 12월 17일 속초마레몬호텔 대연홀에서 자비나눔 대법회를 개최한다. (033)630-7000

통도사성보박물관, 성보학술제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 관장 현근 스님은 12월 2일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조선시대 불교의식과 과불을 주제로 성보학술제를 개최한다.

동원 전국어린이 지도자연수회 동원 이사장 심산 스님은 12월 11~12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제50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051)864-4569

전국비구니회, 비구니 지회 간담회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은 10월 25일 제주도 도남 보덕사에서 개최된 제주지역 간담회에서 비구니 승가들의 위상 확립과 화합을 다졌다.

공불련, 사회봉사의날 하북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12월 4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제 7차 사회봉사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02)739-1080

대불련 새내기 템플스테이 박경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2011년 2월 19~22일 충주 석곡사에서 새내기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외국인 안내 인력풀제 운영”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신임회장

“회장은 심부름꾼입니다. 주인인 국제포교사회가 편안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국제포교사회가 빛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영어 포교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왔던 배광식 회장은 어린이 영어 포교팀도 새롭게 구성한다. 배회장은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 대회가 올해로 3회 이어져 왔는데 내년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암송대회의 위상을 높이고, 영어 교리경시대회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는 ‘국제포교사 운영에 관한 령’에 따라 국제포교사회칙 및 관련 규정 정비, 회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 증진, 지부활성화, 실

무능력 배양의 연수기회 확대를 통해 교계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배광식 회장은 법인화를 통한 사업단 구상에도 진력할 계획이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던 법인화를 위해 재정기반을 갖춰간다. 국제포교사회는 법인화가 되면 번역 사업 등을 통해 수익 모델을 창출해 주제적인 활동과 회원들의 화합과 역량결집과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배광식 회장은 서울대 치과대학학, 석,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치과대학 치과보존과 교수, 서울대 치의학박물관 및 어린이치과 박물관장 소임도 보고 있다. 현재 서울대 교수 불자회 ‘불이회’ 회장, 종교평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 카페 ‘금강 불교입문서’ ‘수미산’ 등 불교 인터넷 카페 및 홈페이지를 통해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글=이상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청년들과 함께 해외종교문화 교류”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신임원장



“외국종교인들과 교류를 통해 종교문화교류, 불교 명상 등을 해외에 알리고 보급하는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불교 르네상스를 통해 순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애주 지혜로운여성 이사가 11월 9일 이사회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신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애주 신임원장은 11월 10~12일 불교여성개발원과 부설 지혜로운여성 주관으로 G20 세계종교지도자회의를 성공적으로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불교계 내부의 정화 및 순화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애주 신임원장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웰다잉 운동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 봉사, 인권상담, (승만경) 대중화 사업, 성 평등 운동 등 지난 10년 동안 펼쳐놓은 사업 기반 다지기에 주력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시민단체와는 달리 실행과 봉사, 사회운동을 함께 하는 종합적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여성 불자들은 보석같은 분들이죠. 여성불자들이 불성을 일깨우는 사회운동에 기여하기 위한 활로를 개척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설립 당시부터 10년간 이사로 활동을 해온 김애주 신임원장은 동국대 영문학과 교수, 영어권 문화연구소장, Toni Morrison Society 회원, 미국소설학회 편집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연 기자

“자기반성해야 살아남는다”

김광식 교수, 조계종 ‘유사 정치집단화’ 비판



“조계종단은 세속을 따르고 개신교와 경쟁하며 유사 정치집단화의 행태를 보인다.”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과 (가칭)불교정화운동기념사업회가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불교정화운동 50주년 기념학술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한 ‘불교정화운동과 조계종의 오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해방 이후 시작된 불교 개혁, 종단개혁이 65주년이 넘어섰지만 최근 조계종의 움직임, 활동, 모습 등을 주의 깊게 보면 과거의 정화와 개혁을 애써 찾지도 않을 뿐 아니라 종단의 정통성과도 거리를 두려는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먼저 불교정화운동(1954~1962)과 종단개혁(1994)에 대한 긍정·부정적 측면을 살폈다.

김 교수는 “정화운동을 통해 한국불교는 식민지 불교의 극복, 교단 정체성 회복을 통한 불교의 발전을 추구했다”고 평가하며 “스비구수단의 정통성 확보 △조계종단 재정립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환기 △교단, 승단, 승가, 승려의 청정의식 일깨워 줌 △민족불교 표방 △불교 내부역량 재정비, 사회적 역할 증대 △사찰내부 정비 및 문화재 보호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

반면 부정적인 면으로는 △불교적인 방법보다는 공권력에 의존 △추진 과정에서 폭력 등 반불교적 행태 노출 △승려 부패, 주지층 빈약으로 인한 ‘금조승’ 확산 △교단, 사찰의 주도권이 비구승, 선수행자에 의해 좌우됨 △정화운동으로 인해 과거의 대치승, 불교 대중화에 관련한 인물(유학승, 지식인)들의 활동과 역사의 부정 △선불교 지상주의 풍토 고착 등이 있다. 김 교수는 “정화운동의 양면성 중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정화운동에 대한 냉철한 객관적 의미와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식 교수는 1994년도에 단행돼

10년간 진행됐던 종단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1994년도 종단개혁은 불교 사회화의 성격 강조되면서 불교계 활동 외연 확장되고, 종단의 기반과 위상이 상승했으며, 승가 교육 및 포교의 기반이 공고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혁주체들의 명리추구와 이에 따른 개혁주체의 분열·해체, 개혁이념의 부재와 재가불자에 대한 배척, 종단의 지경·자율기능 및 의식 부재, 종단 운영의 전통 소멸(사회 민주주의, 선거제도, 집단 이기주의 유입), 세속화와 종단정치 기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

김광식 교수는 “종단개혁의 부정적 성격은 1998·1999년 사태 이후 더욱 급증했다”며 “이 사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시도된 바가 없지만, 성찰을 무조건 회피하는 것은 반지성, 반불교의 몸짓”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불교계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을 정리했다. 김광식 교수는 △공금 횡령(문화재 수리비, 범어사, 화엄사 등) △신정아 사건(종단정치 노출) △종교편향, 범불교대회(국가 권력과 불교와의 연계성 문제, 불교위기) △관음사 사건 △해인사 남몰사업 논란(종단 상징 사찰의 이미지 훼손) △스비구수, 청정승단의 이질성(금강선가, 도박, 은처승) △수행풍토 혼미 △불은사 사태(국가·종단권력 및 불자수행권 간의 충돌) △조계종 명칭 재고 논의(무반승)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사건은 조계종의 세속 따라가기, 개신교와 경쟁하기, 유사 정치집단화의 성격을 띠고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치절한 자기반성, 허위 의식 배척, 참회문화 진작, 현실 직시, 자기역사 정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총무원 국장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22일 신임 국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는 기획실 기획국장 석연 스님, 기획실 감사국장 우봉 스님, 호법부 조사국장 해만 스님, 사서실 사서국장 덕조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견진 스님, 호법부 상임감찰 도권 원복 진관 등록 스님, 호법부 호법과장 설도 스님이다. 노덕현 기자

제1회 청호불교복지대상 공모

공모사업내용 :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사례 및 연구업적 목적 :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창립자 이종대선생의 평소 신념인 요익중생(饒益衆生)을 위한 구체적 실천의 일환으로 불교계 일선 사회복지현장의 우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고 또한 사회복지연구를 장려하여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임.

- 심사 부문 및 시상 내용
심사 부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문과 자원봉사의 프로그램 사례 및 연구업적
응모사업 대상 조건
프로그램사례 부문 - 201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사회복지프로그램 사례
연구업적 부문 - 2009년 9월 1일 ~ 2010년 8월 31일 출판 서적 및 논문
시상 내용
프로그램 부문
대상 : 1,000만원 (기관 700만원, 프로그램실천사례 주책임자 300만원)
우수상 : 500만원 (기관 400만원, 프로그램실천사례 주책임자 100만원)
장려상 : 200만원 (기관 150만원, 프로그램실천사례 주책임자 50만원)
연구업적 부문 - 연구업적상 : 300만원
\* 불교 관련 사회복지프로그램실천사례와 연구의 경우 특별 가산점 부여, - 심사 결과에 의해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신청 자격
1) 프로그램 부문의 경우, 불교신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의 사회복지사업자
2) 프로그램 부문의 경우, 불교신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지 않았으나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사찰
3) 연구업적 부문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외의 불교신자로서 사회복지학 및 관련학의 연구자
응모방법 및 접수 마감
1) 응모방법 : 홈페이지(www.chbuddha.com) 카페(cafe.daum.net/soamandpeople) 이메일(kyt6060@hanmail.net)
2) 접수마감 : 2010년 12월 31일
연락처
재단사무실 02)517-3052, 연구 소 02)517-3045, fax 02)515-3021
주최 |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주관 |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이사장 이종욱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6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Table with 2 columns: Course Name and Content. Rows include Basic Course (37 weeks), Intermediate Course (37 weeks), Practice Class (1 year), Performance Course (1 year), and Specialized Course (1 year).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0년 12월 1일까지

◆개강일시 : 2010년 12월 2일 매주(목) 오후 5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청견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